

안전협회, 해외법인 사업장에 대한 기계기구 검사 업무 시작



안전협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삼성SDI(주) 중국법인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검사는 삼성SDI(주)의 중국 천진법인 및 상해법인의 크레인, 호이스트, 압력용기, 프레스 및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총 100여대에 대한 검사와 함께 중국인 관리자 및 현장 작업자에 대해 위험기계 사용 및 검사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지 삼성SDI(주)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안전협회는 2004년 1월에 심천 및 동관 등 삼성SDI(주) 중국법인에 대한 검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추후 삼성SDI(주)의 말레이시아, 동유럽 법인에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협회는 이번 해외법인 검사를 계기로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검사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협회 제32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안전협회는 지난 12월 12일 한국인력공단 대강당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경영실적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홍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협회 40주년인 갑신년에는 회원의 권위신장과 대변단체로 안전관리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도 중점사업계획에 대해 확정하고, 임기가 완료된 임원 개선안에 대해서 홍범표 감사, 김문영 관리이사, 구해운 기술이사가 재선임되었다.

한편 식전행사로 태양금속공업(주)의 황규홍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감사패와 (주)KT건설사업단 김진영 대리 등 39명에 대한 표창장이 함께 수여되었다.

Safety News



대행사업장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지난 12월 16일 안전협회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가졌다. 금년이 2회째인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걸친 6명의 본선 진출자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한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성남지회 김학주 부장이 '목공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로 대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이홍지 회장은 안전이 국제경쟁력의 한 척도가 되는 시대에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일조하여 경쟁력 갖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심사를 맡은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영순 교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기법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을 시도한 안전협회의 노고에 치하하고, 개선대책에 영향평가가 포함되었으면 더욱 좋겠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노동부 이신재 산업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는 화학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기계기구 업종에 적용시키는 것에 놀랐다고 하며, 조금더 보완하여 중소기업에 맞는 완전한 위험성평가 기법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fety News

제9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2003년도의 마지막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겨울철 재해위험이 높은 화학공장 중 코오롱유화(주)에서 시범안전점검 행사가 열렸다.

작업장 안전통로 및 정리정돈, 위험기계기구 사용시 작업방법,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등의 재해 발생요인에 대해 중점 점검한 이날 행사는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김용달 안전공단 이사장, 조재호 경인지방노동청장 등 많은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졌다.

이날 점검 결과 이홍지 회장은 "100점 만점 가운데 99.9점을 취득 좋은 만큼 안전관리가 뛰어나다"며, "전반적으로 안전에 세심하게 신경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했다.



제3회 안전컨텐츠 경진대회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행사로 안전컨텐츠 경진대회가 지난 11월 28일 중앙회 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44개 안전컨텐츠에 대한 예선을 거쳐 통과한 우수 안전컨텐츠 7개에 대한 본선 대회로, 광주전남지회 배대석이 “VDT 증후군과 예방대책”을 발표해 영예의 금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심사를 맡은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희 교수는 제3자가 활용할 때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더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노동부 박영길 사무관은 마치 연구 발표대회 같고 주제가 사업장에서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올해의 발표대회는 지난해보다 향상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안전컨텐츠 대회가 더욱 발전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표적인 국내 대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욱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안전전문인 컨퍼런스 개최

안전협회는 호텔신라 태평로클럽에서 12월 5일 “2003년 안전전문인 Conference”를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송정식 팀장 등 정부 투자·출현기관 및 대기업 환경안전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흥지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가 및 기업의 발전도, 개인의 행복한 미래도, 안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와 같은 기관이 산업안전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전반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건의사항이 나와, 추후 안전협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주지회 송년회



제주지회(사무국장 김성진)는 지난 12월 11일 뉴월드 벨리 다이아몬드홀에서 제주 관할 회원을 초청하여 “안전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세현,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서석주,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 교수 정태근 등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식전행사로 2003년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제주도지사 표창에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장경석,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표창에 (주)대우건설 양한석, 영진종합건설(주)김영택, 성지건설개발(주)이성호, 경림산업(주)고동린, 탐라사료 임현국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주지도원장 표창에 신안자동차공업사 안성호, (주)정록고형석, 아산종합건설(주)허승이, 제주지회장 표창에 유성건설(주)이재평, 삼국건설(주)임구겸, 미듬종합건설(주)고승남, OISLG 엘리베이터(유)조영돈, 한국콘도관리(주)제주지점 강재홍이 수여 받았다.

창원지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 가져

안전협회 창원지회는 지난 12월 22일 지회 교육장에서 최은영(세광병원장)지회장을 비롯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의 안전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집단관리사업장(G창원공장)의 안전활동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의 최우수사업장에 무재해 5배를 달성한 성하기업(강욱중 사장)과(주)충무(원명무 사장)로 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사업장은 동영전자(박노환 사장), 대성기업(전병문 사장), 광성기업(윤광욱 사장), 승주기업(정택성사장) 명성산업(공동식 사장)으로 지회장 표창을 받았다.

한편, 창원지회장은 한해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업장 안전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 한해도 안전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재해가 없고 일할맛 나는 사업장을 만들어갈것을 당부했다. 

Safety News

